

# 일한·한일사전에 있어서 의성어·의태어 번역의 비교 분석

이 은 경\*

차례

- I. 서론
- II. 사전에 있어서 번역된 품사별 세분화
- III. 웃음과 동물에 관한 의성어·의태어
- IV. 결론

## I. 서론

「일본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의태어가 풍부하다. 또한 감각적으로 상대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표현법의 하나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마츠무라 아키라(松村明)가 『일본 문법대사전』에 서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본어 속의 의성어·의태어의 사용빈도수와 분량은 매우 높다. 이것은 한국어 역시 같은 상황이다.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의성어·의태어는 말하는 사람의 상황이나 정도, 상태, 감각, 정서, 감정, 등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그 이해와 파악이 대단히 간단해진다. 의성어·의태어는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 정서 등을 인상적, 직감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 나라 고유의 감정과 언어문화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의성어·의태어는 음(소리)·모양과 의미와의 관계가 비교적 합리적이기 때문에, 문학작품 중에도 작가의 창작에 의한 새로운 의성어·의태어가 많이 만들어진다.

의성어·의태어는 한국어에도 일본어에도 다른 품사와 비교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 고려대학교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있으며 그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다. 이러한 양국의 언어 속에서 의성어·의태어가 상호 각각의 언어로 번역 혹은 통역될 경우, 대응품사의 비울관계와 어떠한 정서가 지배적으로 의성어·의태어의 감각을 이루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자료로, 『예해 신국어사전 개정판』<sup>1)</sup>을 번역한 『신일한사전(예해)개정판』<sup>2)</sup>과 그 자매편인 『신한일사전(예해)』<sup>3)</sup>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여기에서 우선 사전을 연구 자료로 채택한 이유로서는, 우리가 외국어를 학습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학습서 중 하나가 바로 사전이기 때문이다. 사전이란 사전의 수록어와 그의 상대번역어, 설명내용에 따라 사전의 평가는 달라지며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있어서 사전선택 또한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향상에도 사전의 영향력은 상당히 큰 것이다. 전문용어나 특수용어의 어휘가 아닌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회화용어, 즉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의 사용빈도를 차지하는 어휘는 일반사전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지며, 명확한 의미 파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전수록어의 어휘종류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충족욕구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의 수록어와 그의 번역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신일한사전(예해)개정판』(이하 일한사전이라 칭함)과 『신한일사전(예해)』(이하 한일사전이라 칭함)을 연구 자료로 선정한 이유<sup>4)</sup>로는 하나의 공통적인 맥락으로 상호 언어에 있어서 번역되어 있는 사전인 점을 고려하여 어휘의 해석과 번역에 있어서 일관성에 중점을 두고자 이 연구 자료를 사용하게 되었다. 『일한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총232개와 『한일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총1,191개의 모든 의성어·의태어를 일일이 발췌해서 그들을 세분화시켜 각각의 다양한 각도에서 분류하고 그를 중심으로 하여 비교·분석한다.

즉, 번역되는 품사별로 각각 사용영역을 설정하여 세분화시켜 비교 분석한다. 아울러, 한 가지 주제로 다양한 오노마토펬의 수록과 수록어수에서 두 사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웃음과 동물에 관한 의성어·의태어가 있다. 위의 연구 자료로 선정된 일한·한일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인간의 청각, 시각, 심리상태를 묘사하는 웃음과 생물체 중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에 관한 의성어·의태어를 별도로 분석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의성어·의태어를 대응품사의 관계, 언어정서, 언어문화,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고자 한다.

## II. 사전에 있어서 번역된 품사별 세분화

연구 자료인 사전류에 보이는 「의성어」 「의태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양국의 대표적인 11종류의 「일본어국어사전」과 8종류의 「한국어국어사전」을 조사하여 그 개념을 정의해 보았다. 「의성어」란 사람이나 동물, 자연계의 소리를 흉내 내서 그것과 비슷하게 만든 말이고, 「의태어」란 시각·촉각 등의 청각 이외의 감각과 인상에 의존하여 사물의 모양이나 태도 행동 등의 양태를 묘사한 말을 일컫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영일사전에는 「의음[성어]」로, 프일사전에는 「의음어, 의성어·의태어」로 그 의미가 번역되어 있다. 일본어 번역에 있어서 음(音)이 성(聲)보다 앞에 온다. 이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어는 의음어(擬音語) 쪽이 일반적이다.

번역되는 품사의 분류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한·일 두 언어 모두 「동사」, 「형용사」, 「명사」, 「의성어·의태어」로의 번역 등으로 분류하고, 일본어에는 「형용동사」, 그리고 한국어에는 「형용사화」와 「동사화」가 더 추가된다. 여기에서 「형용사화」란 의성어나 의태어에 「하다」가 접속하는 것을 말하며, 「동사화」란 「거러다」, 「대다」, 「이다」가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각 파트별로 하도록 한다.

전체적인 품사별 분류를 먼저 살펴보면, 『일한사전』에 실려 있는 일본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의 총수는 232단어이다. 일본어가 한국어의 어떤 품사로 번역되어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도표 1> 같고, 각각의 수를 합하면 그것은 총 295단어가 된다.

여기에서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총수가 232단어인데 반해, 각각의 번역되어 있는 품사의 총수는 295단어로 그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므로, 번역함에 있어서 동사, 형용사, 명사 등등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번역 품사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번역된 품사의 총수가 많아지는 것이다.

<도표 1>

	동사	동사화	형용사	형용사화	명사	의성어·의태어	합계
일한사전	31 (10.5%)	12 (4.1%)	93 (31.5%)	8 (2.7%)	1 (0.3%)	150 (50.9%)	295 (100%)

숫자 : 단어 수(비율)

위의 <도표 1>을 번역된 품사별의 비율 순으로 다시 정리하면, 의성어·의태어 > 형

용사 > 동사 > 동사화 > 형용사화 > 명사 순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한일사전』에 실려 있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총수는 1,191 단어이나, 이 역시 중복되는 의미를 가지므로 번역되어 나타나는 총수는 아래의 <도표 2>와 같이 1,244 단어이다. 번역된 품사별의 비율 순으로 보자면 의성어·의태어 > 동사 > 형용사 > 명사 > 형용동사 순이다.

<도표 2>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	명사	의성어·의태어	합계
한일사전	120 (9.6%)	51 (4.1%)	5 (0.4%)	16 (1.3%)	1,052 (84.6%)	1,244 (100%)

숫자 : 단어 수(비율)

여기에서 <도표 1>과 <도표 2>를 비교해 보면, 「의성어·의태어」로의 번역이 『일한사전』은 50.9%로 과반수정도이지만, 『한일사전』은 84.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이유는 한국어로 번역되는 경우에 있어서, 의성어·의태어에 접미사가 붙어 「동사」로, 「동사화」로, 「형용사화」로 품사전향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다음 순위로는 『일한사전』은 「형용사」가 『한일사전』은 「동사」가 많았다.

다음으로 각각 번역된 품사별로 즉, 「의성어·의태어」, 「동사」, 「형용사」, 「명사」, 「형용동사」, 「동사화」, 「형용사화」 등으로 분류한 후, 그를 사용영역 대상별<sup>9)</sup>로 더욱더 세분화한다. 사용영역 대상에는 ① 「인간에 관한 것」, ② 「자연현상에 관한 것」, ③ 「인간 이외의 생물에 관한 것」, ④ 「식물에 관한 것」, ⑤ 「무생물에 관한 것」 등으로 구분짓고, 그 중 ① 「인간에 관한 것」을 「청각」,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심적 상태」 등으로 더욱 세분화시킨다. 이렇게 분류된 항목들의 분석을 통해 일본어 및 한국어의 언어정서와 언어문화에 대해 비교한다.

### 1) 의성어·의태어의 경우

의성어는 대체로 어느 언어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의태어가 발달한 언어는 드물다. 영어의 경우, 어떠한 모양이나 모습을 각각의 동사로 표현한다. 그러나 일본어와 한국어의 경우, 동사 앞에 의태어를 두어 그 모양과 상태를 나타낸다.

(1) あくせく(と)働く。 ▶ **아등바등** 일하다。 ----- 『일한사전』

(2) 찬 바람이 **쌩쌩** 불다。 ▶ 冷たい風がびゅうびゅうと吹く。 ----- 『한일사전』

위의 예문과 같이 『일한사전』 또는 『한일사전』의 의성어·의태어가 그대로 각각의 「의성어·의태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분석하여 각 사용영역 대상별로 비교한다.

이래의<도표 3>에서 「의성어·의태어」로 번역된 총 단어수를 비교하면, 『일한사전』은 총 150개, 『한일사전』은 총 1,052개로 수적으로 월등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일사전』쪽이 7배나 많다. 이것은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의 풍부함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음과 형태, 상황, 상태에 의해 만들어지고 표현되는 상징적 언어기호인 의성어·의태어는 자음과 모음의 수적인 월등한 차이를 보이는 양국의 언어형태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자음의 경우에 일본어는 15개, 한국어는 19개로 한국어자음이 많으며, 모음을 비교해 보면, 일본어의 경우에는 단·이중모음이 /a/, /i/, /u/, /e/, /o/, /ya/, /yu/, /yo/ 등의 8개가 있고, 한국어의 경우에는 단·복모음이 /a/, /ɔ/, /o/, /u/, /ü/, /i/, /ae/, /e/, /oe/, /wi/, /üi/, /ya/, /yö/, /yo/, /yu/, /yae/, /ye/, /wa/, /wo/, /wae/, /we/ 등의 21개<sup>11)</sup>가 있다. 이러한 자음과 모음수의 차이에서 기본적인 양국의 의성어·의태어의 수적차이가 나타나는 그 이유를 간단히 추측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유로서 형태 면에서, 일본어는 한 문자 한 음성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한 문자로는 상징어를 만들 수 없는 것에 비해, 한국어의 경우에는 한 글자에 초성, 중성, 종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한 문자로 상징어를 만들 수 있다. 「꽁」, 「뚝」과 같은 예가 있다. 그리고 특히 한국어의 경우에는 반복어가 대단히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두 번 반복어가 대부분이었지만 「꽁」의 경우와 같이 「꽁꽁」, 「꽁꽁꽁」이라는 두 번, 세 번의 반복어도 수록되어 있어. 『일한사전』과 『한일사전』의 의성어·의태어의 수록어의 총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용영역 대상에 관한 분석을 구체적으로 하자면 『일한사전』은 94.6%, 『한일사전』은 96.1%로 「인간에 관한 것」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며, 단어 수에 있어서도 약 7배의 차이로 전체 총수와 비례한다.

인간의 오감(五感) 중 어느 감각기관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서 「의성어」는 청각을, 「의태어」는 시각, 촉각, 미각, 심적 측면의 감각을 사용하여 음성으로 전환시킨다. 특히 「의성어」는 일반 개념어와는 달라 이해보다 체험적이고, 지적이기보다는 정적(情的)이

다. 음성표상(音聲表象)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소리를 상징하는 언어형식으로 뛰어난 묘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작성이 있는 인간과 동물을 포함하는 살아있는 생물의 소리나 움직임 묘사하는 의성어·의태어가 많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인간에 의해 나는 소리, 인간에게 들리는 소리, 그리고 인간에 의해 묘사되는 움직임 등의 의성어·의태어에 그 수가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표 3>

숫자 : 단어 수 -- (비율)

		의성어·의태어	
		일한사전	한일사전
인간에 관한 것	청각	9 --- (6%)	181 --- (17.2%)
	시각	117 --- (78%)	810 --- (77%)
	촉각	5 --- (3.3%)	12 --- (1.1%)
	후각	·	·
	미각	·	·
	심적 상태	11 --- (7.3%)	8 --- (0.8%)
자연현상에 관한 것		2 --- (1.3%)	3 --- (0.3%)
인간 이외의 생물에 관한 것		1 --- (0.7%)	34 --- (3.2%)
식물에 관한 것		1 --- (0.7%)	2 --- (0.2%)
무생물에 관한 것		4 --- (2.7%)	2 --- (0.2%)
합계		150 --- (100%)	1,052 --- (100%)

「인간에 관한 것」 중에서도 양쪽 모두 「시각」이 각각 78%와 77%로 가장 많았다. 그것은 의성어·의태어의 특성상, 소리, 형태, 움직임 등의 상징적 묘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언어형태임에 따라 인간의 「시각」에 의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표 3>에서는 「후각」 「미각」의 대상에 있어서는 제로로 『일한사전』에서도 『한일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차이점으로는 2순위가 『한일사전』은 「청각」인데 비해 『일한사전』은 「심적 상태」였다. 「청각」의 경우에는 『한일사전』의 일본어로 번역된 한국어가 『일한사전』의 일본어보다 20배나 높았다. 또한 『한일사전』에서의 「심적 상태」의 비율이 하위권이기는 하지만, 단어의 수적인 면에서는 각각 11개와 8개로 별 차이가 없었다.

「인간에 관한 것」을 대상으로 한 사용영역에서, 웃음에 관한 의성어나 의태어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일한사전』에는 「かんじ/げらげら/にこやか/にやにや/にんまり」 등의 5개뿐이고, 『한일사전』에는 「까르르/깔깔/결결/방그레/방글방글/방긋/방긋방긋/방긋/방긋방긋/방긋/방긋방긋/빙그레/빙글빙글/빙긋/빙긋빙긋/빵긋/빵긋빵긋/빵긋/빵긋빵긋/실실/실쭉실쭉/싱그레/싱글싱글/싱글빙글/싱긋/싱긋싱긋/쌍긋/씩/쌍긋/쌍긋쌍긋/으흐흐/킷/

킷킷/킬킬/픽/하하/함빡/해죽/해죽해죽/해해/헤/헤헤/호호/호호/히죽/히죽히죽」 등 46개나 수록되어 있어 한국어 쪽이 훨씬 더 다양한 웃음에 관한 의성어·의태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외인 점은 「にこにこ/にこっ」 등의 웃음에 관한 일본어가 일상 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의태어임에도 불구하고 『일한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인간 이외의 생물에 관한 것」의 대부분은 동물, 곤충 등의 우는 소리가 그대로 의성어로 번역되어 『한일사전』에는 33개, 『일한사전』에는 1개로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한사전』에는 개에 관련된 의성어 「わんわん」 단 1개이나, 『한일사전』에는 개에 관련된 의성어만 9개로 「개갱/개갱개갱/멍멍/왕왕/으르렁/으르렁으르렁/캣/캣캣/컹컹」이 있다. 그 외에 「개골개골/골골/구구구/꼬꼬/꼬끼오/꽤/꽤꽤/꿀꿀/꽤꽤/매암매암/멤/멤멤/비비배배/삐악/삐악삐악/앵/앵앵/어흥/웁/웁웁/윙/윙윙/쩍쩍/푸드덕/푸드덕푸드덕」 등이 25개가 수록되어 있다. 생물의 울음소리나 움직일 때 나는 소리의 의성어로서 개구리, 비둘기, 닭, 오리, 돼지, 매미, 제비, 병아리, 벌, 모기, 파리, 호랑이 등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식물에 관한 것」에는 『일한사전』에 1개, 『한일사전』에 2개로, 다른 품사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의성어·의태어가 「의성어·의태어」로 번역되는 경우만 존재한다.

## 2) 동사의 경우

(3) ぞくぞくするようなうれしい話。▶ 가슴이 설레는 기쁜 이야기.-- 『일한사전』

(4) 채소 값이 두 배나 경춤 뛰었다。▶ 野菜の値が二倍もはね上がった。『한일사전』

위의 두 예와 같이 의성어나 의태어와는 전혀 관련없는 동사로 번역된 경우가 있고, 또 의성어·의태어에 「하다」가 접속하여 동사로 품사전향이 이루어져 동사로 포함된 것들이 있다. 그에 대한 예를 들면,

(5) 合格點すれすれで、試験に受かった。

▶ 아슬아슬한 점수로 시험에 합격하였다。----- 『일한사전』

(6)目がくらくら(と)する。▶ 눈이 어쩔어쩔하다.----- 『일한사전』

와 같다. 이들의 경우에는 일본어에도 대부분 「する」에 접속한 형태를 띤다.

위와 같이 「동사」로 번역된 경우, 아래의 <도표 4>에서 주목할 점은 「인간에 관한 것」 중 「시각」을 대상으로 한 사용영역이다. 일본어의 「동사」로 번역된 의성어·의태어는 전체의 93.3%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율이나, 한국어의 「동사」로 번역된 의성어·의태어는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을 대상으로 한 사용영역이란, 바꾸어 말하면 움직임의 유무에 따른 형태를 「시각」에 의해 표현되는 언어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작성 있는 대표적인 품사인 「동사」가 기본적으로 의성어·의태어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일본어를 대신하여 번역어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총수에 있어서도 「동사」로 번역된 단어수가 『일한사전』의 31단어, 『한일사전』의 120단어로 그 총수에서 약 4배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도 그러한 것 때문이다.

『일한사전』의 경우는 「심적 상태」가 80.6%로 가장 그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한국어로 번역될 때, 「의성어·의태어」로 번역된 11개 보다 「동사」로 번역된 어휘가 25개로 훨씬 많았다는 점이 특징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하다」에 접속하여 「동사」로 품사 전향된 어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써 이 두 영역의 대상을 제외하고는 골고루 0~3개 사이로 단어 수는 매우 적다.

<도표 4>

숫자 : 단어 수 -- (비율)

		동사	
		일한사전	한일사전
인간에 관한 것	청각	·	2 --- (1.7%)
	시각	·	112 --- (93.3%)
	촉각	3 --- (9.7%)	·
	후각	·	·
	미각	·	·
	심적 상태	25 --- (80.6%)	3 --- (2.5%)
자연현상에 관한 것		·	1 --- (0.8%)
인간 이외의 생물에 관한 것		·	2 --- (1.7%)
식물에 관한 것		·	·
무생물에 관한 것		3 --- (9.7%)	·
합계		31 --- (100%)	120 --- (100%)



### 3) 형용사의 경우

- (7) なよなよとした姿。 ▶ **연약한** 모습. ----- 『일한사전』
- (8) さっぱりした味。 ▶ **담백한** 맛.----- 『일한사전』
- (9) 오순도순 지내다. ▶ **仲よく**暮す。----- 『한일사전』

의성어·의태어가 각각의 언어의 품사 중, 「형용사」로 번역된 총수를 <도표 5>에서 비교해 보면 『일한사전』이 93개, 『한일사전』이 51개로 유일하게 『일한사전』 쪽이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심적 상태」를 대상으로 한 사용영역에 있다. 한국어의 「형용사」로 번역된 일본어가 18개, 일본어의 「형용사」로 번역된 한국어가 단 1개로 나타났다. <도표 3>, <도표 4>, <도표 5>의 「심적 상태」를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모두 『일한사전』이 『한일사전』보다 그 단어 수가 많다.

<도표 5>

숫자 : 단어 수 -- (비율)

		형용사	
		일한사전	한일사전
인간에 관한 것	청각	1 --- ( 1.1%)	·
	시각	67 --- (72%)	47 --- (92.2%)
	촉각	4 --- (4.3%)	2 --- (4%)
	후각	·	·
	미각	3 --- (3.2%)	1 --- (1.9%)
	심적 상태	18 --- (19.4%)	1 --- (1.9%)
합계		93 --- (100%)	51 --- (100%)

그리고 『일한사전』과 『한일사전』 양쪽 모두 「인간에 관한 것」이 100%로, 「인간에 관한 것」 이외의 대상영역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형용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아마다 다카오(山田孝雄)는 형용사에 대한 정의를 「사물의 성질·상태가 정지 또는 고정되는 속성으로, 마음속에 묘사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sup>12)</sup>이라고 논하고 있다. 이것은 사물의 성질·상태가 인간에 의해 느껴지는 감각, 즉 오감에 의해 묘사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형용사란 그 어떤 품사보다도 인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품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판단할 때, 형용사로 번역된 의성어·의태어가 「인간에 관한 것」에 집중되어 있음은 당연한 것이리라 여겨

진다. 그리고 「인간에 관한 것」 중에서도, 「시각」은 『일한사전』이 72%이고 『한일사전』이 92.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그 어떤 사용영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미각」에 『일한사전』은 3개로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상징이어서, 그리고 『한일사전』은 1개로 신맛을 나타내는 「시름시름」의 의성어·의태어가 있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다.

#### 4) 동사화·형용사화·형용동사의 경우

각각의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어의 경우, 의성어·의태어에 「거리다」, 「이다」, 「대다」 등에 접속하면 동사로 품사가 전향되는데, 그것을 「동사화」로 분류하는 것으로 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0) あえぎあえぎ坂道をのぼる。

▶ 헐떡거리며(헐떡이며/헐떡대며) 언덕길을 오르다.----- 『일한사전』

(11) おずおずときりだす。▶ 머뭇거리며 말을 꺼내다.----- 『일한사전』

(12) たじたじとなる。▶ 절절매다.----- 『일한사전』

또한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에 「이」, 「히」, 「쩍」 등의 접미사와 함께 「하다」에 접속하면 품사가 형용사로 전향되는데, 그것을 본 논문에서는 「형용사화」로 분류하고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3) なみなみつぐ。▶ 그득히[넙칠 듯이] 따르다.----- 『일한사전』

(14) こまかい字で、ノートにびっしり(と)書いてある。

▶ 자잘한 글씨로 공책에 빽빽이 씌어 있다. ----- 『일한사전』

일본어의 품사분류 중 다음의 예와 같은 「형용동사」로 번역된 어휘도 있으나, 불과 5개로 『한일사전』의 총 1,242단어 수에 비하면 0.4%밖에 안 된다.

(15) 성격이 등글등글하다。▶ 性格が円満だ。----- 『한일사전』

그리고 「동사화」와 「형용사화」로 번역된 의성어·의태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 20개뿐이어서 『일한사전』의 총 294단어 수에 비교하면, 전체의 6.8%에 지나지 않는다. <도표 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각각 0~4개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의성어·의태어가 그대로 존재하면서 다른 접미사에 접속하여 품사분류 상, 「~화」로 분류시킨 것으로서 「의성어·의태어」의 품사분류와 약간의 차이를 두었을 뿐이다.

<도표 6>

숫자 : 단어 수 -- (비율)

		동사화 일한사전	형용동사 한일사전	형용사화 일한사전
인간에 관한 것	청각	·	·	1 --- (12.5%)
	시각	4 --- (33.3%)	4 --- (80%)	3 --- (37.5%)
	촉각	·	1 --- (20%)	2 --- (25%)
	후각	·	·	·
	미각	·	·	·
	심적 상태	4 --- (33.3%)	·	2 --- (25%)
자연현상에 관한 것		·	·	·
인간 이외의 생물에 관한 것		1 --- ( 8.3%)	·	·
식물에 관한 것		·	·	·
무생물에 관한 것		3 --- (25%)	·	·
합계		12 ---(100%)	5 --- (100%)	8 --- (100%)

## 5) 명사의 경우

(16) がたがたのくるま。▶ 틸터리 자동차. --- 『일한사전』

(17) 사람을 보고도 본숭만숭한다. ▶ 人を見ても知らん顔をする。--- 『한일사전』

(18) 병으로 꼬치꼬치 말했다. ▶ 病で骨と皮ばかりになった。--- 『한일사전』

와 같이 「명사」로 번역된 의성어·의태어는 유일하게 「인간에 관한 것」 중의 「시각」에만 존재한다.

아래의 <도표 7>을 보면, 『한일사전』에 16개, 『일한사전』에 1개로, 『한일사전』 쪽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전체 비율로 보자면 각각 1.3%와 0.3%로 미비한 비율에 지나지 않는다.

<도표 7>

숫자 : 단어 수

	명사	
	일한사전	한일사전
인간에 관한 것 (시각)	1	16

### 6) 전체 사용영역 대상에 대한 일한·한일사전의 의성어·의태어 비교

『일한사전』과 『한일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의성어·의태어의 총 단어수를, 번역된 품사별과는 관계없이 사용영역 대상별로만 비교한 표가 아래의 <도표 8>이다.

<도표 8>

숫자 : 단어 수 -- (비율)

		일한사전	한일사전
인간에 관한 것	청각	11 --- (3.7%)	183 --- (14.7%)
	시각	192 --- (65.1%)	989 --- (79.5%)
	촉각	14 --- (4.8%)	15 --- (1.2%)
	후각	·	·
	미각	3 --- (1%)	1 --- (0.1%)
	심리상태	60 --- (20.3%)	12 --- (0.9%)
자연현상에 관한 것		2 --- (0.7%)	4 --- (0.3%)
인간 이외의 생물에 관한 것		2 --- (0.7%)	36 --- (2.9%)
식물에 관한 것		1 --- (0.3%)	2 --- (0.2%)
무생물에 관한 것		10 --- (3.4%)	2 --- (0.2%)
합계		295 --- (100%)	1,244 --- (100%)

위의 표를 보면 『일한사전』은 295개, 『한일사전』은 1,244개로 『한일사전』의 단어 수가 4.2배 많다. 「후각」에 관한 어휘는 양국어의 사전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한일사전』에 「쿵쿵」이란 어휘가 있었으나 「병이나 버릇으로 숨을 콧구멍으로 내쉬는 모양」으로 설명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의성어·의태어」의 번역어는 「くんくん」, 「くすんくすん」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코에 관련된 어휘이기는 하나, 이는 냄새를 맡는 「후각」과는 다르므로 「후각」에 포함시키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

### Ⅲ. 웃음과 동물에 관한 의성어와 의태어

유립권 언어나 영어의 경우, 의성어는 유아어에 국한되어 있어, 품격이 떨어지는 언어

로 인식되어 있으나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른의 일상대화에도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일상대화에 있어서 두 언어의 의성어·의태어에 대한 인식과 어휘사용상의 중요도는 높다.

일반적으로 의성어와 의태어를 비교해 보면, 의미와 소리의 관계에 따른 결합의 합리성은 의태어보다 의성어 쪽이 더욱 두드러진다. 언어기호의 소리(Signifiant)와 개념(Signifie)의 관련규칙과 연합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의성어·의태어 또한 필연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언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결합에 의한 소리와 의미의 관계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산=san」의 경우, 일본어로는 「야마(やま)=yama」로, 한국어의 「강=gang」의 경우, 일본어로는 「가와(かわ)=kawa」로 발음된다. 이와 같이 음과 의미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청각에 의해 만들어진 의성어인 경우에는, 특히 동물의 울음소리와 같은 의성어는 그와 어느 정도 유사한 소리의 조화를 표현하고자 하는 가까운 감각에 의한 것이다.

- ①日本語:こけこっこう,
- ②英語:cocka-doodle-doo,
- ③獨語:kikeriki,
- ④佛語:doquelico,
- ⑤中國語:咕咕咪(ククミー),
- ⑥韓國語:꼬끼오

등과 같은 위의 예를 살펴보면, 여러 나라의 닭 울음소리의 의성어가 자음의 「/k/+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으로 상호간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웃음과 동물에 관한 의성어·의태어가 인간의 언어정서·언어문화의 파악에 한 가지 주제로서 접근하기 쉬운 테마인 동시에, 사람들의 생활정서를 크게 반영하는 분야로 고려되어, 양 사전에서 이 부분만을 독립적으로 발췌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한일사전』의 경우, 그 수록어는 매우 다양한 반면, 『일한사전』의 경우, 웃음에 관한 것도 동물에 관한 것도 상당히 적게 수록되어 있었다. 이는 동물, 사람의 웃음이나 울음소리, 모양 등은 인간의 청각과 시각에 의해 만들어진 의성어·의태어로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얼마만큼

다양하게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으면, 외국어로서 학습을 요할 때, 사전에 얼마만큼 다양한 어휘가 수록되어 있어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가는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인간 이외의 생물에 관한 것」의 대부분은 동물, 곤충 등의 우는 소리가 각각의 의성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으로 『한일사전』에는 33개, 『일한사전』에는 1개로 수록어수의 차이에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한사전』에는 개에 관련된 의성어 「わんわん」 단 1개이나, 고양이에 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을 고양이의 울음소리 3개와 함께 부록으로 한 페이지전체에 걸쳐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한일사전』에는 개에 관련된 의성어나 의태어가 8개나 수록되어 있지만, 고양이에 관한 의성어나 의태어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 외에 약 14종류의 생물의 울음소리나 움직임 때 나는 소리나 모양의 의성어·의태어가 25개 수록되어 있다. 예부터 한국에서는 동물 중에 가장 친숙한 존재가 개이고, 일본에서는 고양이로, 현재에도 일본사람들은 애완동물로 고양이를 선호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개를 선호한다. 이는 동물이 한국인과 일본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느 동물과 친숙한지에 대해 나타내 주는 한 예로 여겨진다.

<도표 9><sup>13)</sup>

▶ 표시 : 일본어역

의태어	설 명
방글방글	소리 없이 입만 연해 벌려 부드럽게 웃는 모양 ▶ 「にこにこ」。聲を出さず、ずっと口を開けて優しく笑う様子
방실방실	소리 없이 입만 벌려 평화스럽게 웃는 모양 ▶ 「にこやかに」、「にこにこ」。聲を出さず、ずっと口を開けて平和に笑う様子
병 굿	소리 없이 입만 벌려 웃는 모양 ▶ 「にっこり」、「にこっと」。聲を出さず、ずっと口を開けて笑う様子
싱글싱글	천연스러운 태도로 연해 귀엽게 눈웃음치며 웃는 모양 ▶ 「にこにこ」。自然にかわいく、目尻が下がって笑う様子
싱글빙글	싱글거리며 빙글거리는 모양 ▶ 「にこにこ」。にこにこ笑う様子
싱 굿	은근한 태도로 정답게 얼른 눈웃음치는 모양 ▶ 「にっこり」、「にこっと」。靜かに親しく目が笑っている様子
생 굿	소리 없이 정답게 눈웃음만 치는 모양 ▶ 「にっこり」、「にこっと」。聲を出さず、親しく目が笑っている様子
해죽해죽	흐뭇한 태도로 귀엽게 연해 웃는 모양 ▶ 「にこにこ」。満足偲な顔で可愛くずっと笑っている様子
히죽히죽	만족하여 무겁게 연해 웃는 모양 ▶ 「にやにや」、「にたにた」。満足して重くずっと笑っている様子

웃음에 관한 의성어와 의태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한사전』에는 5개가 수록

되어 있고, 『한일사전』에는 46개가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일한사전』과 비교하여, 9배가 넘는 단어수로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방긱방긱, 병긱병긱, 빙긱빙긱, 빵긱빵긱, 뽕긱뽕긱, 싱긱싱긱, 썩긱썩긱, 킁킁, 해죽해죽, 헤헤, 히죽히죽」 등의 11개의 반복어를 제외하더라도, 『한일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웃음에 관한 의성어·의태어는 35개나 되며, 의성어·의태어의 반복어는 반복에 의해서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동일한 낱어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한일사전』에 다양한 종류의 웃음에 관한 의성어·의태어의 수록이 한국인의 웃음에 관한 사회정서와 언어감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국어교육에 있어서도 한국인의 웃음에 관한 의성어·의태어의 체계적인 지도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웃는 모양을 나타내는 9개의 의태어와 그 의미설명, 그리고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8개의 의성어와 그 의미 설명이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다. 그것이 위의 <도표 9>와 아래의 <도표 10>이다. 게다가 어감의 강도의 차이까지 지도가 가능한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방글방글-방실방실」 「싱긱-생긱」 「해죽해죽-히죽히죽」 등 어감의 대비가 간단히 파악된다.

또한 아래의 <도표 10>의 의성어도 어감의 차이의 파악이 간단함을 알 수 있다.

<도표 10>

▶ 표시 : 일본어역

의성어	설 명
까 르 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자지러지게 웃는 소리 ▶大勢の人が一齊に笑いこけるわらい聲
꼰 꼰	큰 소리로 못 참을 듯이 웃는 소리 ▶大きい聲で我慢できず笑う笑い聲
꼰 꼰	나오는 웃음을 참아 가면서 웃는 소리 ▶聲を出さないようにこらえながら笑う笑い聲
이 히 히	허리가 부러지도록 자지러지게 웃는 소리 ▶腰が折れそうに、笑いこける笑い聲
허 허	기뻐서 크게 웃는 소리 ▶うれしくて大きく笑う笑い聲
하 하	"허허"의 작은 말 ▶"허허"の小さい語
해 해	마음이 흐뭇하여 까불며 웃는 소리 ▶満足した氣持ちでふざけながら笑う笑い聲
호 호	여자가 작은 소리로 입술을 오므리고 예쁘게 웃는 소리 ▶女の人が小さい聲で口をすぼめて可愛く笑う笑い聲

그 외에도 『바른 생활 1-1』의 희로애락 중, 처음으로 등장하는 의성어나 의태어는 바로 희(喜)이다. 그리고 『국어 2-2』에는 각각의 가족구성원의 여러 가지 웃음에 관한 의성어가 실린 아래와 같은 시가 등장한다.

(19)우리 아빠 웃음은 허허허  
 우리 엄마 웃음은 호호호  
 나는 아빠 따라 웃어도 하하하  
 엄마 따라 웃어도 하하하  
 허허허, 호호호, 하하하  
 허허 호호 하하하, 즐거운 우리 집

권위의 상징인 「아버지」의 웃음소리는 권위와 무거움이 느껴지는 「허허허」, 「어머니」의 다정함과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호호호」로, 밝고 건강한 「나」는 「하하하」로, 그 각각의 구성원의 성격묘사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의 근거는 한국어의 양·음성모음에 의한 어감에 따른 것이다. 즉, 한국어의 양성모음계열인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小·明·近·急·輕·銳·硬·整·薄·淸·密을 나타내고, 음성모음계열인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大·暗·遠·遲·重·鈍·軟·散·厚·濁·緩·疎를 나타내고 있다.<sup>14)</sup> 이와 비교해서 일본어의 경우의 어감은 일본어의 /i/음과 한국어의 양성모음은 비슷한 어감을 나타내며 小·明·近·(時)短를 나타내고 있고, 일본어의 /a/, /o/음과 한국어의 음성모음과 동일한 어감을, 그리고 일본어와 한국어의 /u/음은 모두 음성적인 어감을 나타낸다. 즉, 일본어의 /a/, /o/, /u/음은 大·暗·遠·(時)長를 나타낸다.

위의 <도표 9>와 <도표 10>, 예문(19)의 의성어·의태어들은 인간의 희로애락 중, 희(喜)를 최고로 하는 한국인의 생활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옛부터 정이 깊고 인정이 넘치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 민족이라는 것이 이러한 웃음에 관한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가 그 좋은 예이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어서의 웃음에 관한 의성어나 의태어는 『일한사전』과 다를 바 없이 교과서 본문에 등장하는 어휘의 종류도 횡수도 상당히 적은 편이다. 한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와는 달리 의성어나 의태어에 대한 단독적인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의성어·의태어를 소개하자면,



- (20)にこにこしながら教えてくれました。「6一下」, p.79(光村図書)
- (21)クラムボンがかぶかぶ笑ったよ。「6一下」, p.79(光村図書)
- (22)ばあさまもほほとわらって、「2一下」, p.41(教育出版)
- (23)“クフ、クッ、クッ。”背中で、おかしな笑い聲がした。「4一上」, p.44(東京書籍)
- (24)立ち上がった岩が、にっと笑ったんだ。「4一上」, p.44(東京書籍)

등이 있다. 『일한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かんじ/げらげら/にこやか/にやにや/にんまり」 등의 어휘와 일본초등학교 교과서 본문에 등장하는 「くすくす」「にっこり」「にこっ」「にこにこ」「にっ」「かぶかぶ」「ほほ」 등의 다채로운 어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일한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5개의 의성어·의태어를 간단히 정리하면, 「かんじ▶빙그레」「げらげら▶결결」「にこやか▶생글」「にやにや▶싱글싱글, 히죽히죽」「にんまり▶빙긔이, 빙그레」 등의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또한 『한일사전』의 경우에는 의성어는 「からから」「きゃっきゃっ」「はは」「あはは」「ふっ」「ふふっ」「へへえ」「ほほ」「くくくっ」「くすくす」「へらへら」「うふふ」「ふふ」로, 그리고 의태어는 「にこにこ」「にこり」「にこっ」「にっこり」「にこやか」「にたにた」「にやにや」「にやり」「にんまり」 등의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다. 46개의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가 일본어의 의성어·의태어의 종류가 빈약한 관계로 대부분 비슷한 어휘로 번역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번역되는 단어 3개의 정확한 의미설명이 아래의 <도표 12>와 같다.

<도표 12>

▶ 표시 : 한국어역

의태어	설 명
にこにこ	満足したり、嬉しかったり、喜んだり、續いて笑っている、笑いを浮かべている様子。うれしそうに笑うさま ▶만족하거나, 신나거나, 기뻐하거나, 계속해서 웃고 있는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 기쁘게 웃고 있는 모습.
にっこり	「にこっ」と同じ。(にこりの促音化)うれしそうに笑いを浮かべるさま ▶「にこっ」와 같다. (「にこり」의 축음화) 기쁜 듯이 웃음을 띠고 있는 모습
にこっ	満足したり、嬉しかったり、喜んだりして、短い時間、笑いを浮かべている様子。うれしそうに笑みをふくむさま ▶만족하거나, 신나거나, 기뻐하거나 해서 짧은 시간동안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 기쁜 듯이 웃음을 담고 있는 모습

\*일본어 설명: 『廣辭苑』 참조

이것은 각각의 의성어·의태어의 뉘앙스, 어감, 구체적인 의미의 정확한 구별과 전달이 힘들다는 것이다.

발음 즉, 음이 감각에 있어서도 두 언어의 느낌은 매우 다르다. 이 점은 의성어나 의태어는 한자어사용이 아닌 각국의 순수국어에 의한 형성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웃음에 관한 소리, 즉 의성어는 두 언어 모두 비슷한 어감을 갖고 있지만,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는 상당히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음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일한·한일사전의 총 수록단어수와 세분화한 번역된 품사별, 또는 사용영역 대상별과의 총 단어 수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어휘 하나가 여러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예가 『한일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아래의 (25), (26)의 예문과 같다.

(25) **함빱** 웃음 진 얼굴. ▶ 笑み가 あふれる顔。『한일사전』

(26) 소나기를 **함빱** 맞다. ▶ わか雨に びっしょり濡れる。『한일사전』

위의 「함빱」이 「동사」와 「의태어」로 번역되어 있고, 또 다른 예로 「のびのび」와 「무럭무럭」의 경우, 사람에 관한 「시각」에도 「식물」에도 「동물」에도 영역대상이 중복된다. 따라서 사전의 수록어, 품사별 분석어, 사용영역 대상별 분석어의 관계가 위의 설명과 같이 상호 일대일의 대응관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이들의 수치와 비율에 대한 상호간의 연관성, 영향력 등의 밀접한 관계를 유추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아래의 <도포 1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점을 알 수 있었다.

<도표 13>

숫자 : 단어 수(비율)

품사 사용 영역 대상	품사 전	동사		동사화	형용사		형용 동사	형용사 화	명사		의성어 · 의태어	
		일한	한일	일한	일한	한일	한일	일한	한일	일한	한일	
인 간 에 관 한 것	청각	·	2 (1.7%)	·	1 (1.1%)	·	·	1 (12.5%)	·	·	9 (6%)	181 (17.2%)
	시각	·	112 (93.3%)	4 (33.3%)	67 (72%)	47 (92.2%)	4 (80%)	3 (37.5%)	1 (100%)	16 (100%)	117 (78%)	810 (77%)
	촉각	3 (9.7%)	·	·	4 (4.3%)	2 (4%)	1 (20%)	2 (25%)	·	·	5 (3.3%)	12 (1.1%)
	후각	·	·	·	·	·	·	·	·	·	·	·
	미각	·	·	·	3 (3.2%)	1 (1.9%)	·	·	·	·	·	·
	심적 상태	25 (80.6%)	3 (2.5%)	4 (33.3%)	18 (19.4%)	1 (1.9%)	·	2 (25%)	·	·	11 (7.3%)	8 (0.8%)
자연현상에 관한 것	·	1 (0.8%)	·	·	·	·	·	·	·	2 (1.3%)	3 (0.3%)	
인간 이외의 생물에 관한 것	·	2 (1.7%)	1 (8.3%)	·	·	·	·	·	·	1 (0.7%)	34 (3.2%)	
식물에 관한 것	·	·	·	·	·	·	·	·	·	1 (0.7)	2 (0.2%)	
무생물에 관한 것	3 (9.7%)	·	3 (25%)	·	·	·	·	·	·	4 (2.7%)	2 (0.2%)	
합계	31 (100%)	120 (100%)	12 (100%)	93 (100%)	51 (100%)	5 (100%)	8 (100%)	1 (100%)	16 (100%)	150 (100%)	1052 (100%)	

품사 면에서 정리를 하자면 의성어나 의태어로의 번역이 두 사전 모두 가장 많다는 점이 두드러지며, 이것은 일본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유럽권 언어나 영어의 의성어는 유아어에 국한되어 있고, 품격이 떨어지는 언어로 인식되어 있으며, 의태어는 다양한 종류의 동사로서 표현된다. 그러나 한국어와 일본어의 의성어·의태어는 어른의 일상대화에도 상당히 다양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른 품사들과 동등한 격으로 인식되어 있고, 연령, 성별, 지위와 상관없이 일상적 회화에 있어서 두 언어의 의성어·의태어에 대한 인식과 어휘사용상의 중요도는 다른 품사들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그 다음 순으로는 『일한사전』은 형용사로의 번역어, 또한 『한일사전』은 동사로의 번역어 2순위로 나타난 것이 차이점 중의 하나이다.

사용영역대상 면에서 보자면 두 사전 모두 「인간에 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일한사전』은 「무생물에 관한 것」, 『한일사전』은 「인간 이외의 생물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의성어나 의태어가 대부분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어휘이므로 「인간에 관한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며, 그 중에서도 「시각」과 「청각」, 「심적 상태」 등에 특히 많았다. 그리고 「후각」에 관한 의성어나 의태어는 두 사전 모두 단 하나도 수록되어 있지 않았던 점들이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일사전』의 「청각」에는 사람의 웃음소리나 모양에 관한 어휘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었으나, 『일한사전』에는 극히 그 수가 적었던 점이 큰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의 정서 즉, 웃음과 해학에 익숙하고, 낙천적인 문화적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한일사전』의 「인간 이외의 생물에 관한 것」이 「인간에 관한 것」 다음으로 많았던 이유는 동물에 관한 의성어나 의태어가 상당수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한국인의 동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잘 반영되어 있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일사전』은 반복어, 강·약, 대·소 등으로 인한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어휘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의성어와 의태어의 총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한사전』에도 강·약, 대·소에 의한 어감이 나타나기는 하나 한국어만큼 많지는 않고, 그 수는 대단히 적다.

#### 【注】

- 1) 林 四郎(編修代表), 野元 菊雄·南 不二男·國松 昭 編著 『例解新國語辭典(第三版)』(日本三省堂, 1991.)
- 2) 김정숙 편역/林 四郎·野元菊雄·南不二男·國松 昭 편저 『신일한사전(예해)』(한국민중서림 / 日本三省堂版, 1996.12.1)
- 3) 김정숙 편저 『신한일사전(예해)개정판』(한국민중서림/日本三省堂1996.4.20.)
- 4) 연구 자료에 대한 선택이유를 「げらげら」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였다. 일본의 대표적인 사전출판사에서 출간된 일본어국어사전인 『廣辭苑』 5), 『角川國語辭典』 6), 『新國語辭典』 7)에서 「げらげら」라는 오노마토펜(8)를 살펴 본 결과, 『廣辭苑』과 『新國語辭典』는 의태어로, 『角川國語辭典』은 의성어로, 각각 의성어·의태어의 구분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의 일관성 있는 전개를 추구하기 위해 편역된 사전과 그 자매편을 선택하여 고찰하였다.

- 5) ‘大聲でとめどなく笑う様子’로 뜻이 수록되어 있듯이 「ゲラゲラ」는 의태어를 가리킨다. 『廣辭苑』(岩波書店, 1991.)
- 6) ‘しまりなく笑う聲’로 뜻이 수록되어 있듯이 「ゲラゲラ」는 의성어를 가리킨다. 『角川國語辭典』(角川)
- 7) ‘しまりなく大聲で笑うさま’로 뜻이 수록되어 있듯이 「ゲラゲラ」는 의태어를 가리킨다. 『新國語辭典』(三省堂, 1992)
- 8) 오노마토펬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onomat(이름)」과, 「poiein(만들다)」이 결합한 말로, 서양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sound(소리)」의 세계를 총괄해서 표현하는 말이다. 일본어의 명칭으로서는 영어에서 온 오노마토펬어(onomatopoeia)보다 프랑스어에서 온 오노마토펬어(onomatopée)가 일반적으로 쓰인다.
- 9) 天沼 寧의 의성어·의태어분류법<sup>10)</sup>, 즉 인간, 인간을 제외한 생물, 무생물, 자연 등의 분류에 의거하여 기본적인 사용영역대상을 설정하였고, 식물부분과 인간의 오감부분을 추가하여, 사용영역대상 분류를 완성하였다.
- 10) 天沼 寧 『擬音語・擬態語事典』(東京堂出版, 1988)
- 11) 최현배 『우리말본』(정음사 1980)
- 12) 山田孝雄 『前掲書』 210~213항
- 13) 『국어 5-2』, 문교부 국정교과서
- 14) 최현배 『우리말본』(정음사 1980)

### 參考文獻

- 김정숙 편역/林 四郎·野元菊雄·南不二男·國松 昭 편저 『신일한사전(예해)』(한국민중서림 / 日本三省堂版, 1996.12.1)
- 김정숙 편저 『신한일사전(예해)개정판』(한국 민중서림/일본 산세이도(三省堂)판 1996.4.20.)
- 신 기철·신 용철 편자 『새우리말큰사전』(삼성출판사 1987)
- 淺野鶴子 編者 『擬音語・擬態語辭典』(角川書店1981年)
- 大坪併治 編者 『講座 日本語學 4』 象徴語彙の歴史(明治書院1982年)
- 北村甫 編 『講座 言語6 世界の言語』大修館書店1993年)
- 金田一春彦·林 大·柴田 武 編者 『日本語百科大事典』(大修館書店1988年5月)
- 國語學會 編 『國語學大辭典』(東京堂出版1980年)
- 柴田武 編 『講座 言語1 言語の構造』(大修館書店1994年)
- 鈴木雅子 編者 『日本文法』 第4券 研究資料 (明治書院1984年)
- 新村 出 編者 『廣辭苑』(岩波書店1991年)
- 野村雅昭·小池清治 編 『日本語事典』(東京堂出版1992年)
- 宮島達夫 著 『語彙論研究』(むぎ書房1994年)

## 日韓・韓日辭典のオノマトペの翻譯における比較分析

李 恩 卿

『日韓辭典』と『韓日辭典』を用い、兩辭典から擬聲語・擬態語を全て取り出し、先ず、相互に翻譯される品詞別、すなわち、オノマトペ、動詞、形容詞、名詞、形容動詞（『韓日辭典』のみ）、動詞化（『日韓辭典』のみ—オノマトペに「거리다」、「대다」、「이다」がつくもの—）、形容詞化（『日韓辭典』のみ—オノマトペに「이」、「히」、「ㅁ」がつくもの—）に分類する。その上、品詞別に分類されたものを次のような使用領域対象別に分ける。①「人間に關するもの(感情・精神・身体・生理作用)」、②「自然・自然現象に關するもの」、③「人間以外に生物に關するもの(動物・昆蟲など)」、④「植物に關するもの」、⑤「無生物に關するもの」に分けて分類し、さらに、①「人間に關するもの(感情・精神・身体・生理作用)」を、「A、聽覺」、「B、視覺」、「C、觸覺」、「D、嗅覺」、「E、味覺」、「F、心理状態」に細かく分け、分析をする。そして動物や笑いに關する擬聲語・擬態語について、もう少し詳しく調べ、日本と韓國の言語情緒や言語文化に触れてみることにする。

品詞別のところを先にみると、『日韓辭典』は50.9%、『韓日辭典』は84.6%とオノマトペへの翻譯が兩辭典とも一番多かった。それは兩國語のオノマトペの豊富さがよくわかるところである。その次に『日韓辭典』では「形容詞」が31.5%で、高い率を占めている。「形容詞」の使用領域対象の分析結果のところをみると、「人間に關するもの」に100%集中しており、人間と形容詞との密接關係をよく表している。山田孝雄が形容詞の定義を「事物の性質・状態が停止または固定される屬性で、人の心の描寫を表すもの」と言っているように韓國語に比べてオノマトペが比較的少ない日本語は對應翻譯語の品詞に「形容詞」が用いられているのである。「人間に關するもの」の中、「視覺」に關する擬態語が遙かに多く、「聽覺」に關する擬音語も結構多く収録されていた。しかし、「嗅覺」のは一つも収録されていなかった。

動物の「オノマトペ」は『韓日辭典』に33語、『日韓辭典』に1語、そして笑いの「

オノマトペ」は『韓日辭典』に46語、『日韓辭典』に5語と、その収録語の差は明らかである。このような点は相当「聽覺」や「視覺」、「人間以外に生物に關するもの」等の總數の影響に及んでいるのである。

辭典の収録語の總數は『日韓辭典』は232語、『韓日辭典』は1,191語であり、品詞別の總數は『日韓辭典』は295語、『韓日辭典』は1,244語であった。ここで、約5.1倍も『韓日辭典』の方が多いのは基本的に韓國語の擬音語・擬態語の多様さ、豊富さによるのであるが、ほかに日本語には見ない繰返し語、日本語には非常に數少ない子音による強・弱、大・小の語感の差を表す語が韓國語にはかなり多く存在しているためである。